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들

은혜로 충만했던 만민하계수련회 첫째 날 교육 및 은사집회 소식과 인도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이 기도받고 소생한 사례.

‘팔복’ 시리즈

주 안에서 법사에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 권세와 능력도 누릴 수 있다.

“성령 안에 하나 된 축제였습니다!”

만민하계수련회 둘째 날 체육대회 소식과 모자(母子)가 함께 금메달을 획득한 버지니아 집사의 행복한 간증.

마음 다해 드리는 믿음의 찬양~

하계수련회의 대미를 장식한 캠프파이어 소식과 주를 향한 열정적인 찬양에 감동되었다는 우크라이나 알렉산드르 목사의 인터뷰.

만민뉴스

제902호 2019년 8월 1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치료받아 간증하기 위해 단에 올라온 성도들

치료와 축복,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해외 28개국 참석, ‘2019 만민하계수련회’

지난 8월 5~7일까지 전북 무주덕유산 리조트에서 ‘2019 만민하계수련회’가 열렸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 되고, 해외 28개국에서 총회장과 주의 종 및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총 10개 언어(수어 포함)로 동시통역되었다.

전국적인 폭염 가운데에도 수련회장은 하나님께서 최적의 기온과 날씨로 역사해 주셨다. 첫째 날 저녁 교육 시간에는 평균 23.3도의 적정 온도로, 둘째 날 오전 체육대회 시에는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둘째 날 저녁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7일 새벽에 소멸된다는 기상 예보와는 달리 6일 밤 8시 40분경 이수진 목사가 기도한 뒤 9시경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고 수련회장을 뒤덮었던 비구름이 사라졌다.

이와 더불어 잠자리 떼가 수련회장에 함께함으로 올해도 벌레 없는 쾌적한 수련회가 되었고, 성도들의 손과 몸에 친근히 날아와 앉음으로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첫째 날 교육 시 강사 이수진 목사는 ‘부활의 영광’(롬 8:18)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정 부활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마음의 할례에 힘써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며 “초대교회와 같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개하는 찬양과 기도를 인도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단 위에서 참석자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간경화, 오십견, 관절염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정신적인 질환도 치료받았다. 이 외에도 보행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치료받고 시력, 청력이 회복되며 휠체어를 의지해 온 성도가 걷게 되는 등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한편, GCN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서 참석한 성도들의 간증도 수시로 접수되었다. 인도에서 의식불명이던 사람이 깨어나 움직이고 사시, 요로 협착증, 피부질환, 안과질환을 치료받고 악한 영의 세력에서 놓임 받는 등 여러 나라에서 치료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도받은 후 남편이 기적같이 살아나자 아내 키란 넬슨 성도(인도, 23세)가 수련회장으로 간증을 전해왔다.

제 남편 아쿠쉬 넬슨은 2019년 6월 19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에 혈전이 생겨 의식이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5~10%의 움직임만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통해 호흡하고, 코를 통해 주스를 공급했는데, 거부반응을 하고 구토까지 했습니다. 결국 2019년 8월 5일 아침,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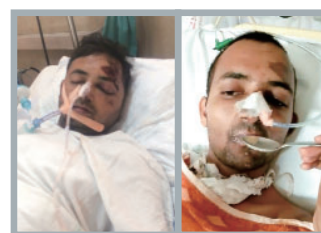
저는 20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과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어 유튜브 검색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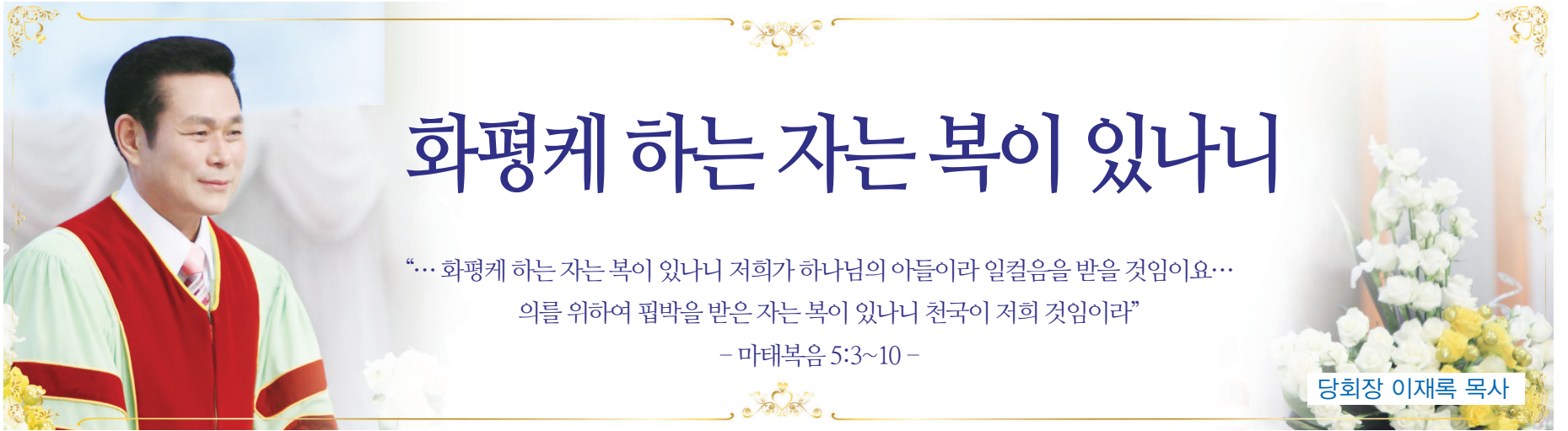
때마침 만민하계수련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GCNTV HINDI를 보

게 되었고 저는 라이브 서비스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때, 하계수련회 강사 이수진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기도받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 의사들이 달려 왔지요. 저는 GCNTV HINDI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전화번호 중 하나로 왓츠앱을 연결하여 남편의 움직임을 촬영하여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회복되었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미음을 먹기 시작했으며 작은 공기로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기침하거나 토하지도 않고 잘 먹었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남편을 다시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일반적으로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좇으며 상대를 먼저 생각해 맞춰 주며, 편벽됨이 없고 진리 안에서 양면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영적 의미의 화평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생명까지 내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참된 복의 일곱 번째 관문 :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배우게 되면 악한 의도로 화평을 깨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남아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을 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상대에게 맞춰 주는지, 아니면 상대가 내게 맞춰 주는지를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義)로 인해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러므로 우선 '상대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지', '내 생각이 옳고 진리이기에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연장자이고 윗사람이므로 아랫사람이 무조건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해 주는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히 12:14). 아무리 자신이 옳은 것 같아 해도 나로 인해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려면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사 59:1~2). 예수 그

리스도를 영접하면 보혈의 공로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엡 1:7), 이때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어간다면 또다시 죄의 담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실 때 먼저 죄 사함을 주신 것도 이 때문이며(마 9:2),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후에도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십니다(요 5:14).

이처럼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아 강건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 받아 부요해지는 등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등 악이 있는 이상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것이 요동하므로 스스로 고통 받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 받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마음이 곤고해지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 주십니다(행 2:38).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갈 4:6)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지요(요 16:8).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악을 온전히 벗어 버리면 자기 자신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므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후에야 다른 사람들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크게 이루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닮기 원하십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연약한 믿음도 고려해 화평을 좇아가는 것이 합당하지요. 누구를 대하든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꺾져 가는 심지도 꺾지 않는 양선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때 화평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요 12:24).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 생각하는 기준이나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결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맞추어 줍니다(창 13장).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어 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에게 겹옷까지도 내어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간다면 십 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마 5:39~41).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되 반드시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했는데, 여기서 ‘아들’이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1:12)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만 거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주님의 형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상을 본받아야 합니다(롬 8:29). 범사에 자신을 희생하고 화평을 좇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마 10:1).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암, 에이즈, 백혈병 등 온갖 불치, 난치병들을 치료하고 앓은뱅이,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소아마비 등이 온전케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지요.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나 귀신이나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온전케 됩니다(막 16:17~18). 시공간을 초월해 치료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손수건이나 몸에 지녔던 물건을 통해서도 치료되는 등 희한한 일들이 따릅니다(행 19:11~12).

또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천기를 움직여(마 8:26~27) 오던 비가 멈추고 태풍의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소멸시키기도 하며, 쾌청하게 맑

은 날에도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외에도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참 자녀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되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 만민하게수련회’ 둘째 날 오전, 체육대회는 영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시작하였다. 1대대팀(중국교구·해외교구 포함), 2대대팀, 3대대팀, 지교회팀(국내의 지교회 및 해외 성도)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경기는 남·여 줄다리기, 남·여 애드벌룬공굴리기, 남·여 팔씨름, 그리고 남·여 100m달리기, 남·여 오래달리기와 남·여 계주가 아동·학생, 주의 중, 청·장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재미와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승리를 향한 뜨거운 경기를 펼친 결과, 우승은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3대대팀에게 돌아갔으며, MVP는 달리기 종목에서 선전한 임경민 형제와 이재아 자매에게 주어졌다. 특히 여자줄다리기는 1대대팀이 우승해 7연패를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 행사를 가진 뒤, 이수진 목사는 폐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으로 시종 해를 가려주시고 그때그때 상쾌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좋은 날씨 속에 진행되었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모든 선수와 열정적으로 끝까지 응원해 준 모든 성도, 그리고 수고한 일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들과 함께 금메달을 따서 아주 기뻐요”



다니엘라와 버지니아

저는 여자 팔씨름과 줄다리기에, 아들은 남자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올해로 팔씨름에서 4번째 우승을 했는데요, 제 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팔씨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 아들도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해 우승해서 아주 기쁩니다.

아들은 작년에 주님의 은혜로, 외국인으로서 받기 어려운 한국 국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육상 선수로 스카우트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비 전액 및 기숙사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금메달만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믿음의 찬양 ‘캠프파이어’



‘2019 만민하계수련회’ 둘째 날 저녁, 무주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진행된 캠프파이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예능위원회 소속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올린 캠프파이어는 감사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파워워십팀,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가 코러스로 함께했다.

1부에서는 만유의 주재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 다한 믿음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이어 우리 교회에 온 뒤 새롭게 거듭나 변화의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의 간증 영상이 상영된 뒤, 밤하늘을 가르고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다. ‘Happy song’이라는 곡으로 빛의소리중창단과 크리스탈싱어즈의 흥겨운 특송도 진행됐다.

2부에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변함없이 창대히 이뤄질 것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에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로보조로프 목사
(우크라이나 ‘반석 위에’ 교회 담임)

저는 4년 전, 이스라엘에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인도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만민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자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한 설교에 매료되었고 특히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설교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는데, 제가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 꿈이 이뤄졌습니다.

예상대로 만민중앙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다니엘철야’를 보고 놀랐고, 성도들의 친절함과 사랑에 놀랐습니다.

특히 만민하계수련회는 정말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조직적이며 수

준 높은 행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첫째 날 교육 때,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둘째 날 체육대회는 마치 올림픽을 보는 것처럼 시종 일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프파이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에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만민중앙교회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